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

김혜온*

초 록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문화비교 분석을 하기 위하여 권리와 의무의 정의, 결정주체,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 124명, 한국 청소년 116명이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개념의 이해를 구별하는 큰 특징은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외적 조건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어서 권리를 허가, 합법적인 것으로, 의무를 외적 규제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삶과 같이 규범의 내면화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 주체에 대해서 독일 청소년들은 법적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내적 정향과 관계적 정향을 더 강하게 보였다.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한 이유를 독일 청소년들이 능력과 자원의 부족이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역할과 지위와 같은 인습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주제어 : 권리, 의무,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문화비교연구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 본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에 도움을 준 김우림 학생에게 감사한다.

I. 서 론

1959년의 UN 아동권리선언 이후 1979년에는 세계 아동의 해가 선포되고,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는 등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1991년 국회 비준을 거쳐 아동 권리 협약의 실행당사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유주의의 부상과 함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너무 권리만을 강조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Finkel & Moghaddam(2005)은 사회심리학 문헌들을 분석하고, 의무에 대한 연구에 비해 권리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적하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권리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권리 추론에 대한 발달 단계 모델을 제시한 Melton(1980)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이 모델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아동들이 권리를 자아중심적으로 지각하며,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임의대로 주어지거나 박탈되는 특권으로 이해한다. 2단계에서는 권리를 공정성, 사회적 질서의 유지, 규칙의 준수에 근거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권리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발달 모델은 Piaget와 Kohlberg가 제시한 일반적인 인지 및 도덕성 발달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Ruck, Abramovitch와 Keating(1998)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자율권’으로 구별하고 8세부터 16세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권위주체의 기대와 모순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가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율권은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에 보호를 받을 권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은 권리에 대한 이해에 사회 인식이 반영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delson, Green & O'Neil(1969)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의식

이 청소년 초기에서야(대략, 만 13-15세) 발달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 조망 능력의 확대(Selman, 1980),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Kohlberg, 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권리와 의무 개념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예들 들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의 발달(Eckenberger & Zimba, 1997), 일상생활에서의 책무 수행(Goodnow, 1988), 형제간의 갈등과 권리의 침해(Ross, Filyer, Lollis, Perlman, & Martin, 1994), 사회적 정의 개념의 이해(Lind & Tyler, 1988)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권리와 의무 개념을 주로 표상, 추론, 추상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한편 Hoppe-Graff & Kim(2001)은 권리와 의무의 이해를 물론 개념 이해와 같은 인지 발달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으나, 권리와 의무 개념은 수나 공간개념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 권리와 의무는 규범적 뉘앙스를 갖게 되고,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의식에 관한 연구는 도덕성 발달의 맥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발달 심리학적 연구는 개념의 이해, 가치범주 외에도 법, 정치에 대한 이해의 발달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신과 국가 혹은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법적 체계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을 때는 권리나 의무를 사회, 정부, 혹은 법과 연결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동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을 사회적 제도와 관련지어 정의하는 것을 사회적 표상의 발달로 설명한 Doise, Staerkle, Clemence & Savory(1998)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적 표상을 개인과 집단의 상징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칙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표상의 발달과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제재 혹은 인권 침해에 대한 해석을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지적, 가치·규범적, 법·정치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모든 사회 내지 문화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권리와 의무를 설

명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Haney(2002)는 자신의 “맥락적 모델”에서 권리와 의무의 이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동기, 귀인, 추론과 같은 심리적인 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였고, 사람들은 복합적인 상황과 다양한 관점, 편견 등에 의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후 권리와 의무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배경이 탐색되었다(Mitchell, 1998; Spragens,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 민족의 인권에 대한 태도가 연구되었다(Doise, Spini, & Clemence, 1999). Schweder(1991)도 권리, 자유,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의무, 조화를 더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비교하였다.

한편 Moghaddam과 Riley(2005)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과 안전을 위해 부모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제재가 주어지고, 이러한 지원과 제재들이 아동의 권리와 의무의 틀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이 전보다 더 많이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욱 권리를 추구하는 자녀와 여전히 의무를 강조하는 부모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 더불어 부모 자녀 관계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Moshman, 1999). 따라서 부모 자녀 간의 기대, 양육 목표, 의사소통 양식이 차이가 있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을 한 개인 즉 독립적 존재로 파악하는가, 혹은 관계속의 존재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는 다를 것이다.

Hofstede(1980)이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별이 문화를 설명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호의존적 자아와 독립적 자아개념의 구별이(Markus & Kitayama, 1991)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비교의 틀을 이루었다. 물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제반 심리적 변인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과장 되었으며 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의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지만(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a), 많은 문화비교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주의보다 관계가 중요하고(Kagitcibasi, 1997), 규범과 당위성(Triandis, 1995), 집단 소속원에 대한 의무(Oyserman et al. 2002b) 강조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청소년들의 권리, 의무 의식이 다를 것으로 예

상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독일은 개인주의 사회로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Kuechler, 1993; Cha, 1994; Triandis, 1995; Kippel, 1998; Hoppe-Graff & Kim, 2004). 물론 한국 청소년들이 근래에 들어 개인주의 경향을 점점 많이 보이고 있지만 관계의존성, 위계구조의 강조, 가계 중시 등과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독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과 한국에서 양육목표, 자녀의 가치에 있어 문화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는데, 독일에서는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화목, 예의바름, 창의성 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eewind, 1991; Quaiser-Pohl, 1996). 최근에 Inglehart와 Welzel(2005)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산업 후(postindustrialization) 사회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표현적 가치(예: 자아실현, 개인적 선택, 자율성, 창의성)의 증가에서도 독일과 한국이 차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문화비교 연구에서 Schwartz(2003)는 독일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정서적, 지적 자율성과 평등적 참여가 더 강조되는 반면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동조를 요구하는 경향이 더 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비교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의 기능, 양육 목표, 가치관 등에서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두 사회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서구에서는 시민 혁명,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일찍이 권리와 의무가 성문화되었고, 한국도 해방 이 후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으나 성문화된 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이해의 인지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가?
- 2)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이해의 가치·규범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가?
- 3)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이해의 법·정치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한국에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와 20만의 소도시, 독일에서는 인구 50만의 중간 규모의 도시에서 중 1부터 고 2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독일의 학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독일의 경우에는 Gymnasium과 Mittelschule 학생들을 표집하여 학력 차이에 의해 측정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모두 공립학교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어 특수계층의 자녀들이 밀집된 학교가 아니었다. 설문 조사는 담임교사 감독 아래 각각의 학급에서 단체로 이루어졌다. 개방형 질문에 성의 없이 응답한 학생들이 있어서 전체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만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들의 국가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의 국가별, 성별, 연령별 분포

		만12-13세	만14-15세	만16-17세	계
한 국	남	19명	19명	20명	58명
	여	18명	20명	20명	58명
독 일	남	20명	20명	22명	62명
	여	20명	20명	22명	62명
계		77명명	79명	84명	240명

2. 조사도구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경험적 선행연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연구자가 제한하지 않고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권리와 의무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문항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권위주체를 진술하는 문항을 제시하였

다. 또한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들 질문을 통해 권리와 의무 개념을 사고의 대상으로 유도하여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였고,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법적, 정치적 의식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와 의무의 정의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권리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문장완성형)

2) 권리 (의무)의 결정 주체

- “본인의 권리를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 “본인의 의무를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3)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에 기입하십시오.”

4) 성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

-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옳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장완성형)

3. 분석방법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번역하고 독문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에 의해 다시 독일어로 재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였다. 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기본 범주를 설정하였다. 기본 범주의 수는 문항별로 15개에서 23개에 이르렀다. 응답내용을 기본 범주에 분류하는 작업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의 데이터를 두 명의 연구보조자들이 교차 분류를 하여 그 결과의 일치도를 카파의 값으로 검토하였는데, 모든 문항에 대해 .80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 값을 확인하였다.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토론에 의해 재분류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패키지로 처리하여 빈도, 백분율을 계산 하였으며, 국가¹⁾,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내용이 복합적일 때 여러 범주에 복수 응답 처리하였기 때문에 각 범주에 해당되는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각 범주별로 χ^2 검증을 하였다.

III. 결 과

본 논문에서 활용된 범주들은 응답자들이 기록한 내용에 근거하여 bottom-up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권리 및 의무의 학문적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고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이지 못 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생각을 발견적인 방법으로 질적 분석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 범주를 다시 상위범주로 묶어서 제시하려고 한다.

1) 독일의 경우 학교유형(Mittelschule와 Gymnasium), 그리고 한국의 경우 도시 크기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독일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을 비교하였다.

1. 권리와 의무의 정의

〈표 2〉에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의 응답자의 빈도, 백분율과 카이검증의 결과가 제시되었다²⁾.

〈표 2〉 권리와 의무의 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주	한 국 N (%)	독 일 N (%)	χ^2
권 리 자율성	46(40.7)	47(41.3)	0.006
허 가	8(7.1)	60(52.6)	56.12***
권리와 책임의 상보성	30(26.5)	24(21.1)	0.94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27(23.9)	10(8.8)	9.51**
올바른 삶	18(15.9)	1(0.9)	16.76***
의 무 해야 될 일을 행함	26(23.6)	80(66.7)	42.77***
책 임	31(28.2)	32(26.7)	0.07
개인 활동의 제한	4(3.6)	2(1.7)	0.88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9(8.2)	2(1.7)	5.35*
올바른 삶	33(30.0)	1(0.8)	38.76***

*p<.05, **p<.01, ***p<.001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의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권리에 대한 설명을 16개의 기본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묶어 [자율성], [허가], [권리와 책임의 상보성],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올바른 삶]의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³⁾ 의무는 15개의 기본 범주를 기초로 [해야 될 일을 행함], [책임], [개인 활동의 제한],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올바른 삶]의 5개 상위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40.7%가 자율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권리를 정의하였다. 독일

2) 결과를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5% 이하에게서 나타난 응답내용은 표시하지 않았다.

3) 본 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이 응답한 내용의 예는 “...” 표시로, 이를 분석하여 분류한 상위 범주는 [...]표시로 구분하였다.

의 청소년들도 자율성에 해당되는 내용을 비슷한 비율로 답변하였다(41.3%). 자율성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와 [자율적인 통제]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었는데, [자율적인 통제]의 예로서는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의 응답을 들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에게서 모두 [자율적인 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한국 25.7%; 독일 36.0%; $\chi^2=2.82$, $p=.062$).

많은 독일 청소년들이(52.6%) 권리를 허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허가] 범주는 다시 [해도 되는 것]과 [합법성]으로 구별하였는데, 예를 들어 “무엇인가 하도록 허가된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라고 한 응답한 내용이 [해도 되는 것] 범주에 해당된다. [합법성]의 예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의 응답을 들 수 있다. [합법성]은 독일 청소년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한국 3.5%; 독일 38.6%; $\chi^2=41.83$, $p=.000$). 단순히 [해도 된다는 의미]의 허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반면 (12세 10.5%; 14세 5.3%; 16세 2.6%; $\chi^2=8.95$, $p=.011$) 합법성의 의미는 증가하는 (12세 10.5%; 14세 14.0%; 16세 28.1%; $\chi^2=15.69$, $p=.000$) 것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특이한 것은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올바른 삶을 독일의 청소년들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범주에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것”, “자긍심을 느끼는 것”,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응답이 포함되고, [올바른 삶] 범주에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청소년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 등의 응답내용이 분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삶]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데 비해 독일 청소년들은 이런 측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독일의 경우 약 20%가 넘는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의 상보성을 강조 하였다 (“의무를 수행하면 권리도 획득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권리를 이해하는데 책임의 동반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12세 3.5%; 14세 9.7%; 16세 13.3%; $\chi^2=7.73$, $p=.021$).

의무에 관한 답변은 <표 2> 하단부에 정리되었다. 대부분의 독일 청소년들이 의무를 단순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66.7%). 의무를 [책임]의 의미로 해석한 비율은 26.7%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응답의 예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약속을 지키기”, “책임 의식 갖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은 더 다양하였는데, [올바른 삶의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의 빈도가 30.0%였고, 단순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빈도는 23.6%였다. 의무에서도 [올바른 삶은 청소년답게, 인간답게, 사회 구성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외에도 의무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한 응답은 독일의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은 독일 청소년들에게는 의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의무로 언급되었다(8.2%). 흥미롭게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존중과 인정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무를 [개인활동의 제한]으로 정의한 응답자는 소수에 그쳤다.

2. 권리와 의무의 결정 주체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결정하는 주체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결과 분석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독일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를(74.8%),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 자신이라고(53.4%) 응답한 비율이 각각 상대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의무에 대한 결정 주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독일 청소년들이 외에도 권리의 주체를 제도, 행정적 권위(23.6%), 그리고 국가 정부, 법(43.9%)과 같은 법적·정치적 시스템으로 본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표 3> 권리와 의무의 결정 주체

권리와 의무의 범주	한 국 N (%)	독 일 N (%)	χ^2
권 리 나 자신	62(53.4)	15(12.2)	46.52***
부 모	21(18.1)	92(74.8)	76.98***
다른 사람들(부모제외)	34(29.3)	8(6.5)	21.43***
선생님, 교장선생님	6(5.2)	22(17.9)	9.33**
제도, 행정적 권위	2(1.7)	29(23.6)	25.26***
국가, 정부, 법	3(2.6)	54(43.9)	56.11***
사회, 전통, 규범	13(11.2)	14(11.4)	0.00
의 무 나 자신	60(51.7)	26(21.1)	24.24***
부 모	22(19.0)	103(83.7)	100.40***
다른 사람들(부모제외)	33(28.4)	10(8.1)	16.70***
(교장)선생님, 교육청	6(5.2)	31(25.2)	18.30***
제도, 행정적 권위	4(3.4)	13(10.6)	4.58*
국가, 정부, 법	6(5.2)	39(31.7)	27.50***
사회·의식, 전통, 규범	14(12.1)	13(10.6)	0.13

*p<.05, **p<.01, ***p<.001

[국가, 정부, 법]이 본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는 응답은 독일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함께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권리: 12세 6.5%; 14세 15.4%; 16세 22.0%; $\chi^2=14.32$; $p=.001$ 의무: 12세 4.1%; 14세 10.6%; 16세 17.1%; $\chi^2=12.08$; $p=.002$)). 이 외에도 사회의식, 전통, 규범이 권리의 결정 주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과 독일 모두 10%대를 이루었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 중 자기가 자신의 권리를 결정한다는 비율이 53.4%나 되었다. [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서 조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 뿐 아니라 친척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의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독일의 청소년들은 권위의 결정주체를 환경 변인 즉 부모와 제도적 장치로 지각하는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가족 외에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점이다. 의무의 결정 주체도 권리에서와 같이 독일 청소년의 경

우 부모와 법적, 정치적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고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 부모 및 가족을 의무를 결정하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를 서술하라는 문항에 독일 청소년들의 2/3정도가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가(평등권, 행복권, 노동권, 교육을 받을 권리, 언론 및 신앙의 자유 등)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기본권의 중요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12세 10.6%; 14세 25.2%; 16세 30.1%; $\chi^2=29.99$, $p=.000$).

한국청소년들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29.3%) 그 비율은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서 낮았다. 한편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46.6%) 독일 청소년들에게서 보다(18.7%) 더 높았다.

〈표 4〉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의 범주		한 국 N (%)	독 일 N (%)	χ^2
권 리	자유권	54(46.6)	23(18.7)	21.21***
	보호받을 권리	6(5.2)	10(8.1)	0.84
	기본권	34(29.3)	81(65.9)	31.93***
	존중과 인정을 받을 권리	10(8.6)	3(2.4)	4.44*
	올바른 삶	11(9.5)	3(2.4)	5.37*
의 무	법과 규칙의 준수	12(10.3)	11(8.9)	0.14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무이행	6(5.2)	37(30.1)	25.10***
	등교하기	19(16.4)	53(43.1)	20.23***
	학습과 인격의 고양	48(41.4)	4(3.3)	50.90***
	타인에 대한 배려	23(19.8)	15(12.2)	2.60
	책임있는 행동	3(2.6)	3(2.4)	0.01
	올바른 삶	6(5.2)	1(0.8)	3.99 *

* $p<.05$, *** $p<.001$

[올바른 삶과 존중과 인정을 받을 권리도 독일 청소년들에게서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자유권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나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 “자유롭게 살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권과 연령과 관련된 사항에서(예: 귀가시간, 이성친구 사귀기) 규제를 받지 않는 권리, 사적 영역에 대한 권리, 여가활동, 자유시간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응답 내용이 포함되었다. 독일 청소년의 경우 자유권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을(10.6%에서 4.9%, 3.3%로 감소, $\chi^2=7.87$ $p=0.020$) 보였다.

[보호 받을 권리에는 생리적 욕구의 만족, 사랑과 도움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10% 미만의 청소년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독일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은 더 다양한 권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의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 하단부에 제시되었다. 독일에서는 [등교]의 의무가(43.1%), 한국에서는 [학습과 인격의 고양]이(41.4%)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면 독일에서의 [등교]의 의무는 규칙의 준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의 [학습과 인격의 고양]은 학생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청소년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올리기” 라고 응답한 것 외에도 “공부를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행동하기” 등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언급하였는데, 등교하기가 외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라면(외적 정향) 공부하거나 인격을 고양시키는 것은 내적인 자세 및 결심을(내적 정향) 나타낸다. 반면 [등교하기]는 한국 청소년들 중 16.4%만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답하였다.

[법과 규칙의 준수] 범주에는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의 금지와 같이 일반적인 법과 규범의 준수 뿐 아니라 귀가시간 지키기, 금주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연령과 관련된 규제 사항이 포함되었다. 독일의 경우 [법과 규칙의 준수]와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무 이행]이 상당히 중요한 의무라고 언급되었는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무 이행] 범주는 가사 돕기, 학교 규칙의 준수,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특히 독일에서 12세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16.3%; 14세 6.5%; 16세 7.3%; $\chi^2=11.18$, $p=.004$).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의무를 생각하는 비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2세 3.40%; 14세 5.2%; 16세 11.2% $\chi^2=6.59$, $p=.037$). [타인에 대한 배려] 범주에는 “친구에 대한 배려”, “노약자 돕기”, “가족과 친지에게 친절하기”등의 응답 내용이 분류되었다.

4. 성인과 청소년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태도

한국(권리 57.0%, 의무 80.0%)과 독일 청소년들(권리 73.2%, 의무 95.8%) 모두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성인과 청소년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태도

권리와 의무의 범주		한국 N(%)	독일 N(%)	χ^2
권 리	나이와 지위의 차이	39(34.2)	26(21.1)	5.08*
	능력과 자원의 부족	29(25.4)	42(34.1)	3.53*
	부정적 결과	4(3.5)	24(19.5)	14.54***
	권리와 의무의 상보성	2(1.8)	5(4.1)	1.10
의 무	나이와 지위의 차이	43(37.4)	19(16.0)	13.78***
	능력과 자원의 부족	23(20.0)	65(54.6)	29.87***
	부정적 결과	6(5.2)	15(12.6)	3.90*
	충분한 의무	8(7.0)	3(2.5)	2.56
	권리와 의무의 상보성	7(6.1)	9(7.6)	0.20

* $p<.05$, *** $p<.001$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나이와 지위의 차이]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권리와 의무 각각 34.2%와 37.4%). 전형적인 예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이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권리와 의무 각각 34.1%와 54.6%). “나는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다” “아직 수입이 없다” 등과 같이 청소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의 부족, 결정 능력의 부족, 확고한 가치관의 부재,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권리: 12세 6.7%; 14세 15.6%; 16세 24.4%; $\chi^2=19.74$, $p=.000$ / 의무: 12세 12.3%; 14세 20.2%; 16세 24.6%; $\chi^2=8.23$ $p=.016$).

독일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성인들과 동등한 의무를 갖게 될 때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는 특히 12세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나타났다(12세 15.6%; 14세 4.4%; 16세 6.7%; $\chi^2=5.96$, $p=.050$).

역할과 지위와 같은 인습적인 면은 한국 청소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독일 청소년들은 능력과 자원의 부족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개념의 이해를 인지적, 가치·규범적,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권리와 의무 이해의 인지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독일과 한국 청소년 모두 권리를 자율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와의 상보성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자율성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되는 자율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 예를 들면 많은 독일 청소년들이 권리를 허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권리를 존중 받는 것과 올바른 삶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독일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같이 관계적 차원을 강조하였다. 이는 Triandis(1995)와 Kagitcibasi(199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규범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과 맥을 같이

이 하는 결과이다.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두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의무의 개념을 올바른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에서도 올바른 삶은 청소년답게, 사회구성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신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독일의 청소년들에게서보다 더 높았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의 결정 주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내적 정향을 독일 청소년보다 더 강하게 보였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외적인 변인 중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에 독일의 청소년들에게서는 부모와 가족 외에도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제도적 측면보다는 내집단(In-Group)에 대한 관계 지향성(Kagitcibasi, 2000)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조부모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이 조손가정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 가족 구성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권리와 의미 이해의 가치·규범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묻는 질문에서 독일 청소년들은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자율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강조하였는데 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나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와 같은 내용과 나이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을 권리, 사적 영역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의무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습과 인격의 고양,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이 규범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독일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무 이행, 등교하기와 같이 외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의무를 외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격의 고양,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나이나 지위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리고 독일의 청소년들에게서는 성인에 비해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 때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언급한 청소년들의 비율도 독일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다. 즉 한국 청소년들에게서는 나이와 역할, 지위와 같은 인습적인 측면이 그리고 독일 청소년들에게서는 능력과 자원의 차이 혹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같은 실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능력과 자원은 나이나 역할에 비해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독일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청소년들에게서 능력과 자원의 차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의 정당한 이유로 언급된 것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가치관과 일치하고(Triandis, 1995), Inglehart와 Welzel(2005)가 주장한 산업 후(postindustrialization) 사회적 특징과 맥을 같이 한다.

권리와 의무 이해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를 허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막연히 “하도록 허가 된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 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는 합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긍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청소년답게 올바르게 살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같이 규범적 차원을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권리와 의무의 상식적 개념은 성문화된 법적 개념을 넘어서지만 독일에서는 이들 간의 일치정도가 더 높아 시민권, 기본권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더욱 증가하였다. 권리와 의미를 결정하는 주체를 가족 외에 국가, 제도, 행정적 권위와 같은 법적,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법적,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도 연령에 따라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 개념을 구별하는 큰 특징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내적 경험을 강조하여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것, 올바르게 살 권리와 같이 규범의 내면화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를 외적 조건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어서 권리를 허가, 합법적인 것, 즉 법적, 정치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태도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 즉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Spini & Doise, 2005; Hoppe-Graff & Kim, 2004). 의무 역시 독일 청소년들은 외적 규제나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 사회적 위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내적 책임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의 인식에는 규범이 강조되고 관계지향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Kagitcibasi, 2000; Oyserman et al. 2002b).

흥미로운 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적 인식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세 청소년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독일 청소년의 경우 권리와 의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그 결정 주체도 법적, 정치적 시스템으로 보는 경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강해진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규범의 내면화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반면에 독일에서의 권리의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이해는 제도적 교육 안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그들의 일상의 상식적 개념으로 더 의식화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사회의 구조, 규칙, 상징적 체계를 이해하며 자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식의 발달은 내적인 능력의 발달과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압력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자성적 사고, 조망수용능력,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은 내적 조건을 형성한다. 외적인 기대 역시 사회적 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질 것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아동들보다는 좀 더 많은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내적 잠재력과 외적 기대의 관계는 Havighurst의 발달과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개념의 이해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연구에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을 기초로 독일과 한국 청소년들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국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서 규범적 측면이 강조되고 법·제도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제도적 교육의 틀에서 학

습된 법·제도에 대한 내용이 일상의 의식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법적, 제도적 요소들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서인지 혹은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규범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기 때문인지는 추후 연구에서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단편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가치지향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건강한 시민 의식의 교육을 위해 규범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들이 균형있게 강조되고 생활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사회적 인식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맥락의 보편적(etic) 문화특수적(emic) 활동기제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에는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 기제 외에도 제도적 교육에서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반영 기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종단적 연구 외에도 Case (1998)와 Rogoff (1998)가 사용한 것과 같은 미시발생학적 (microgenetic) 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개방형 질문에 답한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본 논문에서 활용된 범주들이 권리 및 의무의 학문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식을 발견적 접근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식 이론(naive understanding)'을 체계화 했다는 의미가 있다(Sigel, 1994, Oerter 등, 1996).

끝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발전적 연구를 위해 법철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등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Piaget나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 Habermas나 Rawls와 같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pini & Doise, 2005).

참 고 문 헌

- Adelson, J., Green, B., and O'Neil, R. (1969). Growth of the idea of law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pp. 327-332.
- Case, R. (1998).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structures. In D. Kuhn and R.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pp. 745-800). New York: Wiley
- Cha, J.H.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Triandis, C. Kagicibasi, S.C. Choi, and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pp. 157-174). London: Sage.
- Doise, W., Spini, D., and Clemence, A. (1999). Human rights as social representations in a cross-national contex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9, pp. 1-29
- Doise, W., Staerke, C., Clemence, A., and Savory, F. (1998). Human rights and Genevan youth: A developmental study of social representation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Vol. 57, pp. 86-100.
- Eckenberger, L.H., and Zimba, R.F. (1997).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In J.W. Berry, P.R. Dasen, and T.S. Saraswath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Basic processes and human development* (pp. 299-340). Boston: Allyn and Bacon.
- Finkel, N., and Moghaddam, F.M. (2005). Human rights and duties: An introduction. In N. Finkel and F.M. Moghaddam (Eds.), *The psychology of rights and duties* (pp. 3-18). Washington, DC: APA.
- Goodnow, J.J. (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5-26.
- Haney, C. (2002). Making law modern: Toward a contextual model of justi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8, pp. 3-63.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 Hoppe-Graff, S. and Kim, H.-O. (2001) Struktur, Kultur und Entwicklung (Structure, culture, and development). In S. Hoppe-Graff and A. Ruemmele (Eds.),

- Entwicklung als Strukturgenese* (pp. 333-360). Hamburg : Kovac.
- Hoppe-Graff, S., and Kim, H.-O. (2004). Politische Sozialisation im kulturpsychologischen Perspektive. *Jugend und Politik*, Fribourg, Swiss. 2-4, September, 2004.
- Inglehart, R., and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W. Berry, M.H. Segall, and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pp. 1-49). Boston: Allyn and Bacon.
- Kagitcibasi, C. (2000). Cultural mediation of autonomy-relatedness dynamics in adolescence. *Europ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Adolescence 7th Congress*, Jena, Germany, 30 May - 2 June, 2000.
- Kipple, F. (1998). *Was heisst Individualisier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Kuechler, M. (1993).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 in Germany: The making of a democratic society. In A.S. Huelshoff, A.S. Markovits, and S. Reich (Eds.), *From Bundesrepublik to Deutschland* (pp. 33-58).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Lind, E.A., and Tyler, T.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Press.
- Markus, H.R., and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pp. 224-253.
- Melton, G.B. (1980). Children's concepts of their righ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9, pp. 186-190.
- Mitchell, L.E. (1998). *Stacked deck: A story of selfishness in Americ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oghaddam, F.M., and Riley, C.J. (2005). Toward a cultural theory of rights and duties in human development. In N. Finkel and F.M. Moghaddam (Eds.), *The psychology of rights and duties* (pp. 75-104). Washington, DC: APA.
- Moschman, D. (1999). *Adolesc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Rationality, morality and*

- identity*. Mahaw, NJ: Erlbaum.
- Oerter, R., Hendriati, A., Kim, H.O., and Wibowo, S. (1996). The concept of human nature in East Asia: Etic and emic characteristics. *Culture and Psychology*, Vol. 2, pp. 9-51.
- Oyserman, D., Coon, H.M., Kemmelmeier, M (2002a).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pp. 3-72.
- Oyserman, D., Coon, H.M., Kemmelmeier, M (2002b). Cultural psychology, a new look: Reply to Bond, Fiske, Kitayama, and Mille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pp. 110-117.
- Quaiser-Pohl, C. (1996). *Übergang zur Elternschaft und Familienentwicklung in Deutschland und Südkorea*. Münster: Waxmann.
- Rogoff, B. (1998). Cognition as a collaborative process. In D. Kuhn and R.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pp. 670-744). New York: Wiley.
- Ross, H.S., Filyer, R.E., Lollis, S.P., Perlman, M., and Martin, J.L. (1994). Administering justice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8, pp. 254-273.
- Ruck, M.D., Abramovitch, R., and Keating, D.P. (1998). Children's and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rights: Balancing nurturance and self-determination. *Child Development*, Vol. 64, pp. 404-417.
- Schneewind, K.A. (1991). *Familienpsychologie*. Stuttgart: Kohlhammer.
- Schwartz, S.H. (2003). Mapping and interpreting cultural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In H. Vinken, J. Soeters, and P. Ester (Eds.), *Comparing cultures, dimensions of cultur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43-73). Leiden: Brill.
- Schwede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man, R.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Siegel, I.E. (1994). Elterliche Ueberzeugungen und deren Rolle bei der cognitive

- Entwicklung von Kindern. *Unterrichtswissenschaft*, Vol. 22, No. 2, pp. 160-181.
- Spini, D., and Doise, W. (2005). universal rights and duties as normative social representations. In N. Finkel and F.M. Moghaddam (Eds.), *The psychology of rights and duties* (pp. 21-48). Washington, DC: APA.
- Sprangens, T.A. (1999). *Civic liberalism: Reflections on our democratic ideal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Triandis, H.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ABSTRACT

Understanding Rights and Duties in Korean and German Adolescents

Kim, Hye-On*

To find out how adolescents' concepts of rights and duties are influenced by culture,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tudy with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between 12 and 16 years old. The questionnaire with open-ended questions includes the definition of right and duty, the authority, who lays down their rights and duties, nomination of one's most important rights and duties, and attitude toward to unequal rights and duties for adolescents and adults. The sample consisted of 124 German and 116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s show the different orientation of the view of rights and duties between German and Korean samples, outward in Germans and inward in Koreans. For Germans, right and duty are connected to the outer conditions of one's actions. To hold a right means for them the permission and the legality. For Koreans, the concept of rights primarily relates to the inner experiences of being respected and appreciated, and feelings associated with the strongly internalized norm. While Germans focus on the legal and political authority that lays down their rights and duties, the Korean adolescents perceive themselves as establishers of their own rights and duties. Korean adolescents tend to refer to the conventional factors such as the role and the status to justify differences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rights and duties, whereas their German peers more often consider the qualifications or the consequences of equal rights and duties.

Key words : rights, duties, Korean adolescents, German adolescents, cross-cultural study.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7월 25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Department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